

폭염 속 태양을 피하자, 그늘막 설치 확대

- 2006년 첫 개념 도입 후 2015년 ‘서리풀 원두막’ 계기 전국적 확산
- 기온·바람 감지 스마트 그늘막, 물안개 분사장치 결합 등 기능 다양화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보도나 횡단보도 앞 등에 설치된 ‘그늘막’은 시민들이 잠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폭염 저감시설이다.

그늘막은 2006년 여름, 평창 등 수해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에 검정색 차양막 등을 설치한 것이 그 시작이다. 같은 해 소방방재청(現 행정안전부)의 여름철 폭염종합대책에 개별 주택 대상 차양 그늘막 999개 지원 내용이 담기면서 공식 문서에 처음 등장했다.

도심지 보행자를 위한 그늘막은 2015년 6월 처음 등장했다. 서울 서초구가 파가운 햇볕 아래 보행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을 위해 파라솔 형태의 접이식 그늘막인 ‘서리풀 원두막’을 설치한 것이 첫 사례이다. 서리풀 원두막은 2023년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로 선발되기도 했다.

도입 초기에는 「도로법」상 법적 지위와 설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7년 국토교통부가 그늘막을 ‘도로 부속 시설물’로 인정하면서 안전 및 규격 요건이 정립되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2019년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설치 기준을 표준화하면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갖춰졌다.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이후 지방정부에서는 지역 특성과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그늘막을 선보였다. ▲서울 광진구의 기온·바람 감지 ‘스마트 그늘막’ 및 한파쉼터를 무더위쉼터로 전환 ▲부산 북구의 ‘물안개 분사장치(쿨링포그) 결합형 그늘막’, ▲충남 천안시의 어린이 보호구역 ‘옐로우카펫’ 연

계형 노란 그늘막’ 및 고령자용 ‘원형의자 겸용 그늘막’ 등이 대표적이다. 나아가 겨울철 크리스마스트리, 꽃 화분 등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앞 벽면, 바닥을 노란색으로 표시해 대기 위치를 명확히 하는 교통안전시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생활밀착형 폭염 저감시설을 늘리기 위해 지방정부에 폭염 대책비(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꾸준히 지원해 왔다. 그 결과 2019년 최초 전수조사 당시 5,662개였던 전국 그늘막은 2026년 현재 39,514개로 대폭 증가했다.

< 연도별 폭염 대책비 지원 및 그늘막 설치 현황 >

(단위 : 억원, 개)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폭염 대책비	35	50	118	120	184	150	500	300
그늘막	5,662	14,127	18,890	24,144	27,631	32,196	34,552	39,514
스마트 그늘막	-	770	1,573	2,978	4,216	5,783	7,636	9,163

한편, 올해 여름은 기상 관측 이 시작된 1904년 이후 122년 만의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등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가용 매체를 총동원해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는 등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후변화로 폭염이 일상화된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그늘막과 같은 생활밀착형 폭염저감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폭염으로부터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연재난실 기후재난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진희 (044-205-6360)
		담당자	시설사무관	조호명 (044-205-6364)

참고 1 사·도별 그늘막 설치 현황 ('26.8.3. 현재)

(단위 : 개소)

시도	합계	접이식 그늘막	스마트 그늘막
합계	39,514	30,351	9,163
서울	4,958	3,783	1,175
전남광주	2,251	1,773	478
부산	1,608	530	1,078
대구	840	153	687
인천	2,521	2,313	208
대전	1,041	939	102
울산	565	441	124
세종	719	453	266
경기	15,221	13,012	2,209
강원	1,255	889	366
충북	1,233	864	369
충남	1,915	1,430	485
전북	1,546	1,247	299
경북	1,538	772	766
경남	1,750	1,200	550
제주	553	552	1

참고 2 다양한 유형의 그늘막



폭염 6대 행동요령



본격적인 무더위
● 폭염특보 33℃



무더위 기상상황 확인



더운 시간대 야외활동 자제



야외활동시 신체노출 최소화

*실내온도 26~28 유지



시원한 장소 휴식



충분한 수분섭취



가족 또는 이웃의 안전 살피기

행정안전부

2026년 6월부터 시행

38℃ 이상, 생명을 위협하는 더위입니다. 폭염중대경보 시, 야외활동을 즉시 중단하세요!



'폭염중대경보'가 무슨 뜻인가요?

건강한 사람에게도 위험한 **극단적 더위**에 대한 경고입니다.
필수업무 외 야외활동은 최대한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 폭염중대경보 시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

01 중단



야외활동·야외작업
최대한 중단·연기

02 이동



그늘·무더위쉼터·
냉방시설로
이동, 물마시기

03 확인



가족·이웃·어르신의
안전과 안부 확인

폭염
기본 행동수칙

물 · **그늘** · **휴식**

추가 정보
확인 채널

기상청 날씨누리 기후보건정보 무더위쉼터 찾기 복지 종합안내

기상청 질병관리청